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UNFORTUNATE DECISIONS OF DAHLIA MOSS

가제 : 달리아 모스의 불운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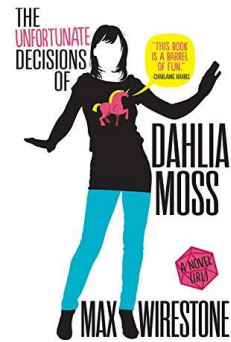
저자 : Max Wirestone

출판사: Redhook

발행일: 2015년 10월 20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미스터리 소설



졸업 후 1년째 실업자 신세인 달리아에게 찾아온 파격적인 제안, 게임 아이템을 찾아라!

대학에서 이름도 화려한 ‘경영학’을 전공한 달리아 모스는 1년 짜 그 화려한 전공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취직을 하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히 실패했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완전히 파산한 달리아는 매일 라면으로 연명하며 살고 있다. 직업도, 그럴듯한 인턴 경험도, 일자리를 찾겠다는 뜨거운 열정도, 튼튼한 자가용도, 남자친구도, 뒷바라지해줄 가족도, 월세도 없는 처참한 상황. 그런데 잠시 룸메이트로 알게 된 채리스가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달리아에게 돈이 엄청나게 많은 괴짜를 소개해준다.

씩 내키지 않았지만, 파산한 상황에 따질 여유가 없어 일단 그를 만나러 나간 달리아. 자신을 조나 롱이라고 밝힌 고용주는 달리아에게 ‘형사’ 일을 맡아달라고 제안한다. ‘조스의 왕국’이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너무나 소중한 아이템 ‘보석 박힌 불멸의 검’을 도둑맞았으니 달리아에게 그 범인을 잡고 잃어버린 검을 되찾아달라는 것이다. 한 번에 100만 명에 달하는 게이머가 한꺼번에 게임을 하는 MMORPG 게임인 ‘조스의 왕국’은 워크래프트처럼 상업적으로 성공한 게임과는 좀 다른 게임이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게임의 디테일에 목숨을 걸고 값비싼 아이템도 서슴 없이 구입할 용단을 가진 골수 중에서도 골수 게이머들이 하는 게임이 바로 ‘조스의 왕국’이다. 점잖은 저녁식사 자리에서 직원을 고용한답시고 부른 사람이 고작 요구하는 것이 이런 일이라니, 달리아는 속으로 코웃음을 친다. 달리아는 형사 비슷한 일도 해본 적도 없으니 자신이 이 일에 부적격자라는 걸 바로 깨달았지만, 절대 이 제안을 물리칠 수 없는 이유가 생겼다. 조나가 계약금으로 1,000 달러를 바로 주겠다고 한 것이다. 심지어 아이템을 찾으면 추가로 1,000 달러를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 그리하여 달리아는 ‘조스의 왕국’이 최소한 자신이 아는 게임이라는 사실 하나만 믿고 덜컥 그 일을 맡기로 한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다.

고용주인 조나가 살해를 당한 것이다. 그것도 가상 세계에 등장하는 그 ‘불멸의 검’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든 모형 검에 찔린 채 목숨을 잃고 말았다.

괴짜 의뢰인의 갑작스러운 죽음, 열혈 형사가 되어 사건 해결에 나선 달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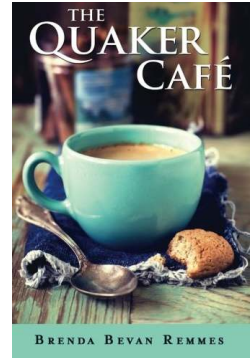
당황한 달리아에게 경찰은 이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달리아는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마침 죽은 조나의 부모님이 고용했다는 담당 변호사가 달리아를 찾아와, 비록 조나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달리아에게 부탁한 일을 끝내달라고 요청한다. 찾으려던 칼과 꼭 닮은 물건에 찔려서 죽었으니, 조나의 부모님이 그 게임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경찰은 게임이 이번 살인사건과 무관하다고 단정 짓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 조나의 가족들에게도 게임과 아들의 죽음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선 달리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조나의 부모님은 그의 목숨을 빼앗은 범인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은 모조리, 살살이 조사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변호사는 전했다. 무엇보다 죽기 전 마지막 소망이던 ‘불멸의 검’을 되찾는다면 죽은 자식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안타까운 심정도 전해졌다. 게다가, 달리아를 또 한 번 까무러치게 만든 조건이 또 하나 생겼다. 의뢰인이 죽은 마당에 가상세계에서 검을 찾으려면 훨씬 더 까다롭고 복잡할 거란 사실을 잘 안다면, 변호사는 그 점을 고려해 비용을 다시 준비했다며 수표를 내민 것이다. 수표엔 10,000 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다. 달리아는 눈을 의심하며, 이 막대한 금액에 큰 부담을 느끼고 더 유능한 형사를 찾아보라고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나 꼭 직접 말아달라는 변호사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받아들이고 만다.

두 팔 걸어붙이고 게임에서 조나의 검을 빼앗아간 범인을 찾아나선 달리아. 그 험난한 여정에서 달리아는 온라인이며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온갖 별종과 괴상한 인물들을 한 가득 만난다. 그 과정에서 알게된 네이션이라는 남자는 달리아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보이지만, 달리아는 그가 웬지 범인인 것 같다는 직감을 지울 수 없다. 지루하고 아무 재미도 없던 달리아의 삶은 어느새 스릴이 가득한 위험천만한 삶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저 게임 광으로만 볼 수 없는 사악한 인물들도 달리아의 앞에 나타난다. 과연 달리아는 문제의 검을 찾아 조나의 부모님에게 반가운 소식을 들려줄 수 있을까? 대체 범인은 무엇 때문에 검을 훔치고 조나를 죽이기까지 했을까? 엉뚱하고 발랄한 매력을 지닌 달리아의 배꼽 잡는 수사 과정이 미스터리와 잘 어우러져 흥미를 자아내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맥스 와이어스톤(Max Wirestone)은 뉴햄프셔의 작은 마을에서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다.

제목 : THE QUAKER CAFÉ
가제 : 퀘이커 카페
저자 : Brenda Bevan Remmes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4년 9월 16일
분량 : 310 페이지
장르 : 여성 소설



마을 카페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판사, 그 죽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과거의 어두운 단면들

‘시다 브랜치’ 마을에 사는 모든 주민이 모여드는 ‘퀘이커 카페’에 어젯밤 친구 매기가 아버지와 함께 들어섰을 때, 리즈는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지금 떠올려봐야 다 지나간 일이 되어버렸지만, 리즈는 그 때 자신이 뭐라도 했어야 한다는 생각에 깊이 후회 중이다. 매기의 아버지이자 지역에서 명성이 자자한 판사인 코벳 캔달 씨는 언뜻 봐도 안색이 좋지 않았다. 얼굴이 지나치게 창백했다. 호흡도 불규칙하고, 딸인 매기의 뒤를 따라 카페 뒤쪽 VIP 테이블로 가는 동안 몸을 떨기도 했다. 항상 앉는 그 자리에 몸을 던져 넣듯 겨우 자리를 잡았지만 아래턱이 이상하게 벌어져서 입안이 다 보일 정도였다. 백발의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다. 코벳 씨가 평소 같지 않다는 건 누가 봐도 알아챌 정도였다. 마침 카페에서 식사 중이던 동네 약사 프랭크 씨가 인사를 건네자, 코벳 씨는 인사라기보다는 귀찮다는 듯 왼손을 저으며 “별로네요.” 라고 대답했다. 리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매기에게 당장 아버지를 병원에 모셔가라고 할까, 고민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공공장소에서 제일 친한 친구에게 이래라저래라 말할 만큼 배짱이 좋지 못한 성격이라 우물쭈물 망설였다. 지난 25년 동안 퀘이커 집안 사람들 틈에 살면서, ‘정직함’보다는 ‘예의 바른’ 행동을 우선시하는 습관이 들어버려 그랬는지도 모른다.

원래 미네소타에서 살던 리즈는 25년 전, 남편 체이스와 만나 노스캐롤라이나의 시다 브랜치 마을로 왔다. 누구보다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그녀가 누구보다 보수적이고 엄격한 퀘이커 집안 사람과, 그것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학 다닐 때 외엔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틈에 섞여 사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이들 키우는 일부터 모든 생활을 사사건건 퀘이커 교 특유의 법칙과 가치에 맞추어야 했다. 하지만 그 힘든 세월을 견디게 해준 동네 친구들이 있었으니, 바로 매기와 빌리였다. 그 매기의 아버지가 그 날 저녁, 카페에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퀘이커 교도 집안에서 억눌려 살아온 여성이 정의와 진실을 찾아나선 감동적인 이야기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인물이기도 했던 코벳 씨가 세상을 떠난 후, 평화롭기만 하던 시다 브랜치에는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 때는 1990년대 초반, 백인과 흑인 주민들이 한 번도 같은 공간에서 어우러진 적 없는 이 마을에서 매기는 아버지 장례식에 흑인 주민들을 초대하는

과감한 시도를 한다. 흑인 성가대가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하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기는 백혈병 진단을 받는다.

고달픈 매기를 대신해 골수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여자를 찾아 나선 리즈와 빌리.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과거의 비밀이 드러나고 만다. 이 오래된 마을 구석에 끔찍 숨겨져 있던 그 비밀에는 마을과 지역 전체의 평화로운 균형을 깨고 침예한 인종 갈등을 촉발시킬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담겨 있었다. 리즈는 온갖 소문이 다 모여드는 웨이커 카페에서 이 문제에 관한 확실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한다. 결국 실체를 드러낸 비밀과 용납하기 힘들 정도로 부당한 사실을 찾아낸 리즈. 남편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그 비밀 속에서 리즈는 착하고 좋은 사람도 때로는 나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그 시커먼 과거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할 것인지, 어떤 결과가 초래되든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리즈는 혼자 결정해야 한다. 인종문제, 신앙, 정직성, 가족, 죽음과 비밀을 한데 엮어, 유머와 감동이 공존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2016년 1월에 2권인 『HOME TO CEDAR BRANCH』가 출간될 예정이다. 현재 아마존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많은 독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Amazon Best Sellers Rank: #69,216 in Books (See Top 100 in Books)

#2580 in Books > Literature & Fiction > Contempo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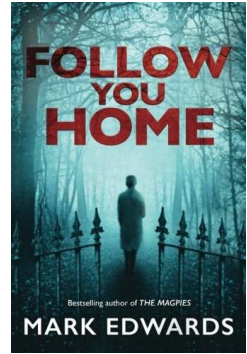
#5310 in Books > Literature & Fiction > Women's Fiction > Contemporary Women

#6082 in Books > Literature & Fiction > Literary

<저자 소개>

브렌다 베번 렘(Brenda Bevan Remmes)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시골지역민을 위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위 소설은 데뷔 소설이다.

제목 : FOLLOW YOU HOME
가제 : 집까지 따라온 그날
저자 : Mark Edwards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15년 6월 30일
분량 : 381 페이지
장르 : 스릴러 소설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전 마지막 유흥으로 떠난 유럽여행, 하지만 한 순간 악몽이 되어버린 그날
어플리케이션 개발 일을 하는 대니얼과 비영리 단체에서 마케팅 일을 하는 로라 커플은 친구 제이크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관계가 급속히 진전되어, 어느새 결혼을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그러려면 일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했던 둘은 그 모든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젊음을 불태울 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3개월 동안 유럽 전역을 실컷 돌아다니면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자는 계획이었다.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데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했다. 그리하여 대니얼과 로라는 배낭을 짊어지고 대망의 여행길에 나섰다.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이비자 섬, 이탈리아 로마와 아말피 해안, 그리스, 크로아티아를 거쳐 헝가리까지 꿈만 같았던 두 달이 지나가고, 두 사람은 루마니아로 향한다. 그곳에서 북쪽으로 이동하여 러시아와 독일에 차례로 들렀다가 스칸디나비아 지역으로 가서 대니얼의 서른다섯 번째 생일을 스톡홀름에서 보내고, 런던으로 돌아와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두 사람의 계획이었다. 밤 11시에 부다페스트를 출발해 루마니아 시기쇼아라로 향하는 기차에 오르기로 한 두 사람은 편하게 잘 수 있는 침대 칸 표를 끊으려다가, 돈을 아끼자는 대니얼의 제안에 반값인 일반 좌석 표를 구입한다. 기차에 오른 대니얼과 로라는 같은 칸에 앉아 있던 루마니아인 커플 이온, 에일리나와 즐거운 대화를 나눈 후, 긴 여행에 지쳐 금세 잠이 들었다. 로라는 잠깐만 눈을 붙일 생각이었지만 너무 깊이 잠이 들었고 승무원이 와서 깨우는 바람에 겨우 정신을 차렸다. 옆에서 정신 없이 자던 대니얼도 그제야 눈을 뜨고, 두 사람은 기차표를 찾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만다. 배낭에 넣어둔 기차표와 여권, 지갑이 몽땅 다 사라진 것이다. 바로 그 순간부터, 둘의 인생을 뿌리째 뒤흔든 사건이 시작됐다.

두 사람이 표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챈 승무원은 당장 내려야 한다고 했다. 루마니아어를 못하는 대니얼과 로라를 위해 에일리나까지 나서서 통역을 해주었지만, 승무원은 극도로 고압적인 원칙주의자였다. 결국 세 사람은 한밤중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길 한복판에 멈춘 기차에서 쫓겨나고 만다. 대체 무슨 일인지 황당하고 겁이 나 어안이 병병해진 대니얼과 로라를 두고 에일리나는 잠깐 근처 숲에서 소변을 보고 오겠다면서 자리를 뜬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에일리나가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한밤 중에 루마니아 숲 속에 내던져진 커플, 이상한 집에서 본 광경, 그리고 집까지 따라온 악몽
어둠 속에 덜렁 남겨진 대니얼과 로라. 둘은 사방팔방으로 에일리나를 찾아 나선다. 그런데 숲
속을 한참 헤매던 중, 두 사람은 이상한 집을 한 채 발견한다. 안에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어딘가 소름 끼치는 분위기가 역력했지만 둘은 그 낯선 지역을 벗어나야 했기에 도움을 청하려
집 안으로 들어선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이상한 집 안에서 보지 말아야 할 무언가를 보고 만다.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받은 두 사람은 곧바로 출항량을 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숲을 빠져 나
와 미친 듯이 걸어서 동이 틀 무렵 겨우 마을을 발견한다. 남은 여행이나 계획은 생각할 겨를도
여유도 없었다. 두 사람은 거기서부터 런던까지 무언가에 쫓기듯 곧장 돌아왔다. 그 날 밤, 숲 속
의 집에서 본 것에 대해선 절대 입 밖에 꺼내지 않기로, 서로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입을 열지 않
기로 단단히 맹세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다. 제발 다 끝난 일하기를 바랬건만, 그건 악몽의 시
작에 불과했다.

런던에 돌아온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버렸다. 대니얼은 상담치료를 받으
러 다니고 로라는 그와 함께 지내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살면서 되도록 집 밖에 나오지 않으려
하면서 살았다. 여행을 떠나기 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지만 다 헛된 노
력에 불과했다. 악몽은 그 먼 곳에서 두 사람이 있는 집까지 이미 따라와 있었다.

두 사람이 본 것은 무엇일까? 자신들이 발을 들인 곳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대니얼과 로라
의 삶은 그 가공할 만한 악마의 힘에 의해 망가지고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한다. 많은 독자
들의 호평을 받으며 높은 판매 순위에도 오른 작품으로, 2013년의 여행과 2014년 런던에서의 삶을
오가며 전개되는 이야기에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한 심리스릴러 소설이다.

Average Customer Review: ★★★★★☆ (1,253 customer reviews)

Amazon Best Sellers Rank: #8,404 in Books (See Top 100 in Books)

#231 in Books > [Mystery, Thriller & Suspense](#) > [Thrillers & Suspense](#) > [Psychological Thrillers](#)

#287 in Books > [Mystery, Thriller & Suspense](#) > [Thrillers & Suspense](#) > [Crime](#) > [Murder](#)

#1174 in Books > [Mystery, Thriller & Suspense](#) > [Thrillers & Suspense](#) > [Suspense](#)

<저자 소개>

마크 에드워드(Mark Edwards)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을 주제로 심리스릴
러 소설을 쓰는 작가다. 루이즈 보스(Louise Voss)와 함께 쓴 『캐치 유어 데스』는 2011년 영국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고, 이후 단독으로 쓴 『The Magpies』와 『Because She Loves Me』도
영국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제목 : MIDNIGHT EXPOSURE

가제 : 한밤중의 폭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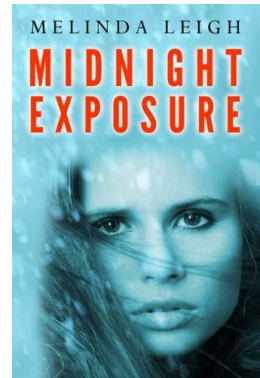
저자 : Melinda Leigh

출판사: Montlake Romance

발행일: 2012년 8월 21일

분량 : 313 페이지

장르 : 미스터리 소설



2013년 대프니 듀 모리에 수상 후보에 오른 작품

눈보라 속에 사라진 두 사람, 또 다른 표적을 찾아나선 살인마와 그를 쫓는 사진기자와 형사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폭설이 쏟아진 10월 31일 할로윈, 같은 대학에 다니는 기숙사 룸메이트 잭과 존은 메인 주의 어느 눈 쌓인 숲 속에서 캠핑 중이었다. 눈발은 점점 거세지자 구조를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에 두 사람은 숲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어디선가 희미하게 흘러온 연기 냄새를 맡는다. 분명 누군가 불을 피운 것 같다. 희미하지만 웅성웅성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도 들린다. 둘은 냄새와 소리를 쫓아 서둘러 그 쪽으로 이동한다. 갑자기 넓은 터가 나타나더니, 한가운데 뜨거운 불길에 지퍼진 곳 주변에 망토를 두른 남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하필 그 시각에, 그 장면을 보게 된 잭과 존. 얼마 후, 두 사람은 연락도 없고 학교로 돌아오지 않아 실종자로 처리된다. 시신 한 구는 발견되지만 다른 한 구는 아예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 날 폭설이 워낙 지독해서 생긴 안타까운 사고로만 생각했다.

그로부터 두 달 여의 시간이 흐른 12월 15일, 붉은 색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용감한 여성이 메인 주 산 속을 찾아온다. 그녀의 이름은 제인 설리반. 타블로이드 신문에 실릴 사진을 찍으러 온 사진작가였다. 자신이 맡은 일이 파파라치와 다름 없는 저급한 일을 제인도 잘 알고 전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이라크 전쟁에 다녀온 오빠 대니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바람에 병원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제인이 돌봐야 할 다른 형제들도 두 명이나 더 있기 때문이다. 일은 저급해도 보수는 타블로이드 신문만큼 주는 곳이 없었다. 이번에도 메인 주의 그 숲 속에서 은둔생활을 한다는 어느 조각가의 사진을 찍으러 추운 겨울 깊은 산속까지 찾아온 것이다. 얼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미스터리한 인물이 된 그 조각가의 모습을 포착하는 것이 제인에게 주어진 임무였다. 하지만 그 낯선 숲에서 제인은 뜻밖의 인연과 만난다. 홀로 아들을 키우는 리드라는 사내였다.

울창한 숲에서 벌어진 이상한 의식, 실종자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켈트 족의 동전

리드 킴볼은 조지아에서 살인사건 전담형사로 일하다가 아내가 무참히 살해를 당한 후 큰 충격을 받고 그곳 생활을 모두 청산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산 속으로 들어와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 이제 열일곱 살이 된 아들 스콧을 제대로 키우는 일에만 전념하면서, 리드는

벌써 5년째 과거를 잊고 최대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며 조용히 살았다. 하지만 불쑥 산속을 찾아온 제인과 처음 마주친 순간부터 리드는 그녀에게 깊이 끌렸다. 겨우 찾은 평온한 삶을 깨고 싶지 않아 망설이는 리드와 마찬가지로, 제인 역시 리드에게 끌렸지만 낯선 사람과 절대 가까이 지내지 못하는 남모를 사연이 있었다. 과거 소름 끼치게 무서운 연쇄살인범의 표적이 되었다가 도망친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겨우 탈출에 성공했지만, 제인의 얼굴에는 그 때 다친 흔적이 커다란 흉터로 남아 있다. 그 날 이후 제인은 두 번 다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주변 모든 상황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살아 왔다.

조각가의 거처를 찾던 중, 제인은 두 달 전 실종된 두 명의 등산객에 관한 이상한 이야기들을 접한다. 발견된 시신 한 구에서 켈트 족이 쓰던 동전이 나왔다는 묘한 소문도 돌았다. 게다가 눈이 어느 정도 걷힌 뒤에도 다른 실종자는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어딘가 수상했다. 지역 경찰은 리드가 과거 살인사문을 전담하던 형사로 활약했다는 사실을 알고 사건 조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제인은 이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님을 직감하며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런데 제인이 호기심을 품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고 나선 순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공격을 당한다. 분명 그녀를 노리는 사람이 있었다. 제인은 그 사람이 자신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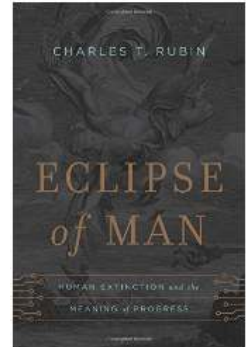
경찰 생활은 절대 안 하겠다고 다짐했던 리드는 제인까지 공격을 당하자 이 교활한 살인마를 잡아내기로 마음을 굳힌다. 눈 속에서 두 등산객이 죽기 전에 보았던 광경은 다 무엇이였을까? 제인을 공격한 섬뜩한 존재는 누구이며, 왜 그녀를 표적으로 삼았을까? 과거 그녀를 노린 그 살인마일까?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 주인공의 아슬아슬한 로맨스가 재미를 더하는 흥미진진한 미스터리 소설이다.

<저자 소개>

멜린다 레이(Melinda Leigh)는 은행에서 일하다가 아이를 낳고 취미로 시작한 글쓰기에 푹 빠져 작가가 되었다. 이후 초자연적 배경의 로맨스 소설과 로맨스 스릴러 장르의 소설을 발표하여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데뷔 소설인 『She Can Run』은 발표 당시 ‘킨들 베스트 데뷔 소설’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 ‘The Romance Reviews’가 선정하는 최고의 도서 결승에 올랐다. 또 2012년 ‘국제 스릴러 도서상’의 최고의 데뷔도서 부문에도 후보에 올랐다.

NON-FICTION

제목 : ECLIPSE OF MAN
가제 : 인간의 쇠퇴
저자 : Charles T. Rubin
출판사: Encounter Books
발행일: 2014년 9월 2일
분량 : 200 페이지
장르 : 인문



더 나은 인간과 자연을 내세워 새로운 인류를 추구하는 ‘트랜스휴머니즘’과 어두운 미래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세상, 인간의 바보 같은 실수가 빚어낸 파괴적인 결과와 뒤늦은 후회에 관한 이야기는 그 동안 무수히 등장했다. 지구 온난화, 핵 전쟁, 방사능 오염, 인구 폭발로 인한 식량 부족, 환경 오염 등 많은 문제들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그 어두운 미래를 더 바짝 다가오게 만드는 또 한 가지 요소가 최근 무섭게 부상했다. ‘트랜스휴머니즘’, 즉 과학과 기술로 인간의 능력을 강화하고 개선하려는 생각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확률과 기회가 기본 바탕이 되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과학과 기술의 힘을 빌어 인간의 의지, 인간의 지능으로 인간의 진화를 이끌려는 이 엄청난 생각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다. 유전공학은 인간에게 신체와 주변 세상을 새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나노 기술을 비롯한 신기술들은 인간이 컴퓨터만큼 똑똑해지고 마음과 마음을 텔레파시처럼 연결시킬 수 있으며 수명 걱정 없이 몇 백 년, 원하면 그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다. 그런데 왜 이런 약속이 반감지가 않고,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리란 희망보다는 걱정과 불안감이 더욱 강렬하게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자연 그대로의 ‘인간’이 멸종하는 세상, 인간을 무엇으로든 변형될 수 있는 ‘원재료’로 볼 뿐 인간성의 가치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 포스트휴머니즘에 담긴 무서운 결과를 짚어보고, 무엇이 그와 같은 극단적인 생각을 촉발시키고 강화시켰는지 추적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현대 과학과 기술이 인간이 스스로를 직접 진화시킬 수 있는 힘을 부여하고 그 힘으로 인간이라는 생물 종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으며, 자연 전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한다. 과거 세상의 종말을 예견했던 사람들처럼 이들도 종말을 예견하지만, 종말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 즉 종말은 인간의 무지와 오만함으로 인한 결과이므로 무조건 피하고 막아야 한다고 보는 대신, 종말을 통해 인간성을 새로이 설계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인간의 결함을 모조리 수정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 기존에 존재하던 인간의 모습을 모두 버리고, 자연과 완전히 다른 인간과 자연이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다. 포스트휴머니즘의 미래에는 지금 그대로의 인간이 설 자리가 없다. 인간의 멸종과 새로운 인간이 여는 새로운 미래, 저자는 이 과격한 생각의 뿌리와 그 주장의 근거, 그리고 위험성을 이 책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더 완벽한 존재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포스트휴머니즘의 주창자들은 왜 자연이 선사한 인간의 특성을 거부하고 진보한 기술로 무장한 전혀 새로운 존재를 원할까? 저자는 미래를 향한 이 근시안적인 견해가 결코 단순한 생각이나 충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짚어보고, 이 극단적 생각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의 모순과 혼란을 분석하여 인간의 한계와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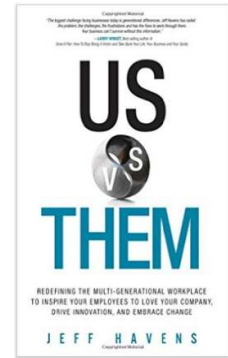
<목차>

- 1장. 과거가 그린 미래상
- 2장. 인간성의 상실을 발견하다
- 3장. 인간성의 상실을 가능케 만드는 것
- 4장. 인간성의 상실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 것.
- 5장. 발전의 진정한 의미

<저자 소개>

찰스 T. 루빈(Charles T. Rubin)은 듀케인 대학교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 『The Green Crusade: Rethinking the Roots of Radical Environmentalism』, 『The New Atlantis』 등을 발표했다.

제목 : US VS. THEM
가제 : 우리 vs. 당신들
저자 : Jeff Havens
출판사: Pearson FT Press
발행일: 2015년 7월 1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경영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세대가 협력하여 혁신을 이끌도록 만드는 참신한 경영 방법

구세대와 신세대의 차이점과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며 연설, 기사들은 하나 같이 이야기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릅니다. 그렇게 알고 대처하세요.” 이런 메시지는 구세대로 하여금 세상을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더 깊고 강렬한 저항감을 느끼게 할 뿐이다. 구세대는 평생 믿고 살아온 확고한 신념과 생각을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타협하고 바꾸어야 할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왜 나만 변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자리하면 변화는 성공할 수 없다. 또 한 가지, 요즘 세대는 다르다거나 세상이 달라졌다는 말이 마치 사실이고 당연한 듯 여기저기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다. 인터넷과 컴퓨터의 등장이 시대 자체를 변화시켰다고들 생각하지만 세상에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나 인쇄기가 세상에 첫 선을 보였을 때도 시대는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사회 전체를 변화시킨 계기가 된 사건이며 중요한 일들이 과거에도 수 차례 있었지만, 지금처럼 세대 간에 팽팽한 긴장과 격차가 존재한 적은 없었다는 사실이다. 현대사회에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산업계에서도 지난 30년 넘는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세대 차이와 세대 갈등은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느끼고 낙담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두 서너 세대를 넘어 심지어 다섯 세대가 한 직장에 공존하는 곳도 있는 시대에, 각기 독특한 특성을 지닌 이 구성원들이 서로 원만하게 지내도록 이끌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 절실하다. 이들 사이에 형성된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고 보다 생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자는 일단 까다롭고 실천하기도 어려운 방법들은 다 배제하고, 단순하고 직관적인 모델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값진 방법들을 이 책을 제시한다.

밀레니엄 세대, X세대, 베이비붐 세대, 이들이 모두 한 직장에 모여 있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저자는 ‘우리’와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로 집단을 구분하는 이 단순하면서도 인류의 첫 탄생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의 사고에 내재되어 전해진 본능적 생각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흑백논리야말로 직장에서 세대간 긴장을 키우는 근본적인 심리적 원인이라고 꼬집는다. ‘우리들’과 ‘당신들’로 구분 짓는 방식은 지금까지 죽 존속했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겠지만, 인간이 그와 같은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를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저자는 나이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와 '당신들'을 구분하는 조직 문화를 없애고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과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동료에게 교훈을 얻는 법, 열정과 생산성,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고무시키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또 애써 만든 변화가 일시적인 자극에 지나지 않고 더욱 성공적으로 지속적인 결과를 이끌게 하는 법, 세대와 상관없이 직원 각자가 커리어 개발에 힘쓰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현대 어느 직장이나 존재하고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세대간 갈등과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도 간단한 해결 방식을 제시한 유익한 지침서다.

<목차>

1부 - 단순하게 그려라

1장. 4세대에 관한 헛소문

2장. 2세대 모델

3장. 세대 차이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

2부 - 문제를 해결하라

4장. 충성심의 특성과 직장의식과의 관계

5장. 커리어 개발

6장. 현상유지와 혁신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7장. 구체적인 실행 방안 정하기

8장. '당신들'을 '우리'로

3부 - 핵심 개념과 전략

9장. 나이가 훨씬 많은 동료, 경력이 훨씬 많은 사람과 대화하는 법

10장. 나이가 훨씬 어린 동료, 경력이 자신보다 짧은 사람과 대화하는 법

11장. 나이가 들면 의욕은 어떻게 변할까

12장. 핵심 주제 요약

13장. 전략 요약

<저자 소개>

제프 헤이븐스(Jeff Havens)는 밴더빌트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가장 강연 요청을 많이 받는 인기 강연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정부, 학계, 소규모 업체부터 대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유의 유쾌하고 재미 있는 방식으로 양질의 교육과 강연을 제공하고 있다.

제목 : THE FATE OF GENDER: Nature, Nurture, and the Human Future

가제 : 젠더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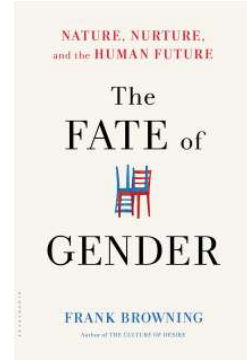
저자 : Frank Browning

출판사: Bloomsbury

발행일: 2016년 6월 7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인문/페미니즘



급변하는 사회에서 “젠더”의 현재와 미래는 어떤 것인지 고찰해보는 책

두 세대에 걸친 페미니즘 운동과 동성애 해방 운동 끝에 동성 결혼은 대부분의 유럽과 미대륙의 절반 이상에서 합법화되었고, 이제 가족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화 되어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은 희미해진지 오래다. 직업전선에서도 여성들의 참여도 증가세가 뚜렷하며, 영국과 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젠더 정체성이 불확실한 아이들을 위해 사춘기를 늦추는 약을 처방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혼인 적령기를 넘긴 여성들이 정자 기증자를 통해 독립적인 여성들만의 지역사회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곳곳의 모습은, 젠더의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규칙에 따라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양에서, 나아가 많은 국가들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이전과 같지 않다. 저자는 이러한 시점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젠더조차 이제는 질문을 던질 만한 개념이 되었다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21세기에 젠더란 어떤 의미일까? 이 책은 젠더에 대해 자신이 경험과 설명을 담은 사람들, 그리고 남성성과 여성성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젠더의 실체는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준다. 생물학적인 "성"의 대안으로 생겨난 "젠더"라는 개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생겨났는지, 산업혁명이 어떻게 가족 형태와 젠더 역할을 바꾸어 놓았는지 등에 대한 역사를 되짚어보기도 하지만, 이 책은 문화적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젠더의 의미는 무엇이며 미래에 젠더는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 고찰해본다.

저자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전하며 다양한 젠더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면서 저자는 또한 남성과 여성의 신경학적 차이나, 양육시의 부모의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세계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인 차이가 아닌 생활 습관으로 인해 차이가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들도 설명한다. "한 사람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시몬 드 보부아르의 말부터 시작해 여성이나 남성은 주어진 성으로 자라나는 것임을 보여주고 "남성성"이나 "여성성"에는 정해진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젠더와 성적 유동성은 세계를 잠식한 규칙을 재정립할만한 변화인 것이다.

인류의 문화와 행위를 과학적 정보들과 연결하여 유구한 역사 속 규칙들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이 책에서, 저자는 "본성 대 양육"이라는 끝없는 논쟁이 뒤따르는 질문을 대입해 본다. <젠더의 전망>과 <본성과 양육, 그리고 사회>, <가족적 가치>, <유동성>, 그리고 <젠더와 존재> 다섯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세계 곳곳의 가족 구성원들이나 사회와 과학 분야 연구자들, 운동가들, 예술가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흥미로운 젠더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본다.

<목차>

-파트1 젠더의 전망-

1장 단순히 정의인가 젠더의 대혼란인가?

2장 모루에서 저항까지

-파트2 본성과 양육, 그리고 사회-

3장 과학과 사회

4장 여성이란 누구인가

5장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

6장 젠더 전쟁

-파트 3 가족적 가치: 새로운 현실과 복잡성-

7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면..

8장 아이를 기르다

9장 부모와 아기를 물어다주는 학

-파트 4 유동성-

11장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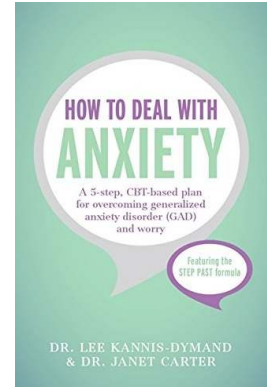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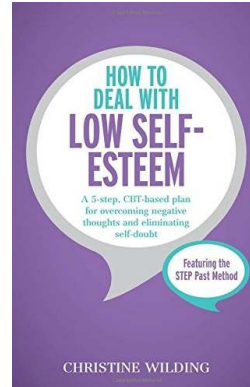
12장 그건 섹스가 아니야

(...)

<저자 소개>

저자인 Frank Browning는 전직 NPR 과학 분야 리포터로, <The American Way of Crime (공저자 John Gerassi)>와 <The Culture of Desire>, <A Queer Geography, Apples: The Story of the Fruit of Temptation> 그리고 <The Monk & the Skeptic>같은 책을 펴내었다. 현재 그는 미술과 문화에 대한 글을 <허핑턴포스트>지에 기고하고 있으며 <워싱턴 포스트 매거진>이나 <Mother Jones>, <Playboy>, <Salon> 등 많은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제목 : HOW TO DEAL WITH 시리즈
가제 : 대처법 시리즈: 낮은 자존감 / 불안감
저자 : Christine Wilding
Lee Kannis-Dymand, Janet D Carter
출판사: Teach Yourself
발행일: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1월 5일
분량 : 256 페이지/256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심리치료의 하나인 인지행동치료(CBT)에서 활용되는 원칙을 토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법을 소개한 시리즈가 발표될 예정이다. 임상에서 직접 인지행동치료를 해 온 전문가들이 꼼꼼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다정한 격려를 담아 개개인이 보다 손쉽게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두 책은 공통적으로 다섯 가지 단계로 구성된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이 다섯 단계는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1단계 ‘밑거름 만들기’,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2단계 ‘부딪히기’,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이겨내고 그 자리를 새로운 생각과 행동으로 채우는 3단계 ‘빠져나가기’, 자신의 행동을 꾸준히 주시하면서 유익한 생각을 붙여 넣는 4단계 ‘실행하기’, 새로운 사고 패턴을 새로운 관점으로 시험해보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가는 5단계 ‘앞으로 나아가기’로 구성된다.

1. 낮은 자존감 대처법 (HOW TO DEAL WITH LOW SELF-ESTEEM) / 저자: Christine Wilding

확신하지 못하는 기분, 이 세상에서 자신이 서 있는 위치는 어디이고 주어진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다는 두려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그러나 이 감정이 깊어져 자존감의 추락으로 이어지면, 자기 자신에게 기대하는 수준이 낮아지고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게 된다. 이런 태도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져 몸과 마음에 묵직한 짐으로 남게 된다. 저자는 이러한 생각과 기분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체계화된 CBT 기반 접근 방식으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자아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에 제동을 걸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과 함께 실패하거나 뒤처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낮은 자존감에 종종 묶인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해방시키고 자신감을 키우는 실용적이고 검증된 방법들이 제시된다.

<목차>

1부 - 밑거름 만들기

- 1장. 자존감이란 무엇일까
- 2장.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자
- 3장. 완벽해지려는 노력

2부 - 부딪히기

- 4장. 인지행동치료란
- 5장. 더 건강한 자존감을 향하여
- 6장. 자학적인 생각을 없애는 방법
- 7장. 마음챙김 식 인식 키우기

(이하 생략)

<저자 소개>

저자 크리스 윌딩(Christine Wilding)은 런던대학교에서 CBT를 공부하고 영국 상담협회 소속으로 개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 국민건강보험(NHS)가 우울증 치료 지침 개발을 위해 구성한 운영위원회에 참여했다.

2권. 불안감 대처법(HOW TO DEAL WITH ANXIETY) / 저자: Lee Kannis-Dymand, Janet D Carter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빈도가 너무 잦으면 건강이며 안전,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을 염려하는 생활이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긴다. 불안감은 반복되는 특성이 있고 갖가지 정서적, 신체적 증상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삶을 즐길 줄 아는 능력에도 영향을 준다. 두 명의 저자는 CBT 기법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현재 자신이 느끼는 불안감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이 책에서 제안한다.

<목차>

1부 - 밑거름 만들기

- 1장. 불안이란 무엇인가?
- 2장. 걱정, 그리고 불안장애
- 3장. 생각을 바꾸고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

2부 - 부딪히기

- 4장. 무엇이 걱정을 끊이지 않게 만드는가?
- 5장. 생리학적 전략
- 6장. 내 머릿속 생각
- 7장. 인지적 유연성, 주의집중,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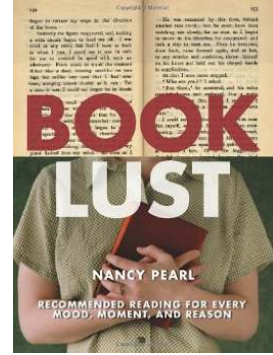
(이하 생략)

<저자 소개>

저자 리 칸니스(Lee Kannis)는 뉴질랜드 캔터베리 대학교와 옥스포드 대학교의 인지치료센터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하고 호주 선샤인코스트 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다.

자넷 카터(Janet Carter)는 20년 경력의 임상 심리학자로 뉴질랜드 캔터베리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목 : BOOK LUST
가제 : 책에 대한 열망
저자 : Nancy Pearl
출판사: Sasquatch Books
발행일: 2003년 8월 12일
분량 : 287 페이지
장르 : 취미



다양한 주제, 상황, 분야를 포괄한 풍성한 추천도서 목록과 책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독서 안내서

세상에 책은 너무나 많고 독서를 사랑하는 사람에겐 다음에 어떤 책을 읽을까, 라는 고민만큼 큰 고민은 없을 것이다. 저자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별로 행복한 생활을 하지 못해서 늘 동네 도서관을 찾아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책을 읽으며 보냈고, 자연스럽게 독서광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공공 도서관 사서이자 도서 리뷰어, 평생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지낸 열광적인 독서가인 저자는 이 책에서 평생 읽은 책들 중에서 추리고 추린 추천 도서들을 소개한다. 재미 없이 목록으로 나열하는 대신 기분, 상황, 독자의 성격에 따라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를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면서도 개성 넘치는 기준으로 책을 분류했다. ‘시인이 쓴 산문’, ‘공룡 사냥’, ‘스릴 넘치는 기술 도서’ 등 총 200여가지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원하는 주제를 세밀하게 고를 수 있다. 저자는 각 분류 마다 짧게는 한 페이지, 길게는 두세 페이지를 할애하여 책에 관한 지루한 설명 대신 그 분류에 포함된 책들에 대한 저자의 견해나 유난히 기억에 남는 구절, 도서의 제목, 간결한 줄거리를 소개한다. 가끔은 작가나 저자의 수상 경력과 같은 부가적인 정보도 제공된다. 책 제목만 목록으로 죽 나열하는 대신 자연스러운 이야기로 풀어가는 글 속에 자연스럽게 책 제목과 저자가 등장해서 마치 누군가 바로 옆에서 책을 소개해주는 것 같은 친근한 느낌이 든다.

책은 순수한 기쁨과 지혜를 얻고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이자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준다. 어떨 땐 누구보다 좋은 친구가 되고, 피할 곳이 없다고 느낄 때 안락한 도피처가 되어주기도 한다. 또 한 번도 경험하거나 들어보지 못했던 세상,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세상도 책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저자는 새로운 책을 펼칠 때마다 목적지도 여정도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은 여행길에 막 한 걸음을 옮기는 것 같은 짜릿한 기분이 들며, 새로운 책을 읽기 시작한 순간은 그 책과 깊은 사랑에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책과 마주하는 흥분된 시간이라고 이야기한다. 누구보다 책과 가까이 지내면서 책과 독서 그 자체를 사랑하는 저자의 이런 순수한 열정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이 간결한 문장들 속에 모두 녹아 있다.

‘라틴아메리카 소설’, ‘자전적 소설’, ‘데뷔 소설’과 같은 일반적인 분류부터 ‘인류의 원시조상’, ‘모든 연령대 어린이들이 읽으면 좋은 역사 소설’, ‘웃이 날개다’처럼 책을 바라보는 저자만의 기

발한 아이디어를 책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많이 알려진 작가들과 함께 충분히 훌륭하지만 저평가된 작가들, 인지도가 낮은 작가들까지 모두 포괄하려고 애쓴 흔적도 엿보인다. 200가지가 넘는 분류에 저자가 깊이 고민하고 추린 수많은 책들이 담겨 있지만, 그럼에도 저자는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책을 혹시 놓친 건 아닌지 계속 생각하게 된다고 토로하면서 독자들에게 자신이 만든 이 목록들을 더 키우고 확장해 달라고 당부한다. 평생 책 속을 여행하며 살아온 저자의 통찰과 책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긴 안내서로, 독자 역시 자신만의 또 다른 독서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직한 지도가 되어 줄 것이다.

<목차>

내 이름은 앨리스

학계: 우스운 이야기들

학문적 미스터리

액션 영웅

책으로 떠나는 모험 - 소설

책으로 떠나는 모험 - 비소설

아프리카: 현재와 과거

흑인 소설: 그의 시각에서

흑인 소설: 그녀의 시각에서

아프리카 식민주의 - 소설

영어로 된 아프리카 문학

노화

미국 역사 - 비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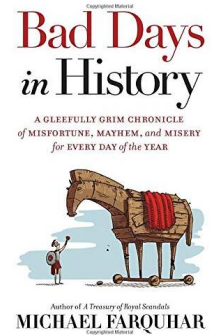
미국 역사 - 소설

(이하 생략)

<저자 소개>

낸시 펄(Nancy Pearl)은 디트로이트, 시카고, 시애틀 지역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해왔다. 책과 독서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강연회도 열고 있다.

제목 : BAD DAYS IN HISTORY
가제 : 역사 속 운수 나쁜 날
저자 : Michael Farquhar
출판사: National Geographic
발행일: 2015년 4월 21일
분량 : 480 페이지
장르 : 역사



“저자의 신작인 역사 속 운수 나쁜 날은 누군가를 시샘하는 사람들에게겐 위안이 될 만한 이야기들
거리들이 가득하다. 온갖 불운과 회한이 뒤섞인 이 이야기들은 재앙같은 실수들을 통한 교훈을 보
여준다” —월스트리트 저널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들, 역사 속 수많은 불운의 이야
기

살다 보면 유난히 운이 안 따른다고 느끼는 날이 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대혼란을 야기하
고, 비극적인 결과와 처참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역사가인 저자는 인류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발생한 가장 흥미진진한 불행과 재앙의 사례를 모아 이 책을 완성했다. 최근 일어난 일들
부터 머나먼 과거를 넘나드는 역사 속 사건까지, 1년 365일을 월별로 정리한 불행한 사건의 사
례들에는 평범한 사람, 왕, 귀족, 유명한 사람, 악명 높은 사람들이 골고루 등장하고 잘 알려진 사
건과 난생 처음 듣는 놀라운 사건들이 광범위하게 소개된다. 시간과 장소를 넘나드는 이 수많은
사건들을 일으킨 불행의 원인도 자연 재해부터 사악한 폭군, 무책임하고 멍청한 사람들, 특별히
힘들었던 시대적 상황, 잘못된 선택까지 다양하다.

짤막하고 간결하게 정리한 역사 속에 날카로운 유머 감각을 가득 담아낸 저자는 ‘인류 역사 속
에는 절망적인 사건들이 하도 많아서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한다. 자산 관리를 잘못하
거나 선택을 잘못해서 우울해진 사람에게 1977년 1월 3일 로널드 웨인의 이야기가 큰 위안이 될
지도 모른다. 웨인은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신출내기 기업의 주식을 10 퍼센트 보유하고 있었는
데, 그 날 800 달러를 받고 그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그 기업은 바로 애플. 그가 팔아버린 주
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300억 달러가 넘는 가치로 불어나고 말았다. 아이들이 말썽을 피워 돌아버
릴 지경인 사람은 이탈리아 이몰라에서 교사로 일하던 카시아노의 사연을 들으면 아마 할 말을
잃을 것이다. 이교도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이 저질러지자 그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카시아노는 363년 8월 13일,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불
들려 기둥에 몸이 묶인 채 죽임을 당했다. 무자비한 그 학생들은 필기구로 그가 죽을 때까지 찢
러냈다고 전해진다. 잘 해보려고 추진하던 일이 실패해서 창피한 사람, 크게 좌절한 사람들에게
1932년 11월 2일 호주에서 벌어진 웃지 못할 소란이 다시 미소를 찾아줄 것이다. 그 날, 호주의

한 육군 소령과 두 명의 병사는 ‘에유 대전’을 시작한다고 엄숙히 선포했다. 호주 대륙의 서쪽, 퍼스 지역에서 2만 마리가 넘는 에유(타조를 닮은 거대한 새. 날리기 속도는 빠르지만 날지는 못한다)를 주된 병력으로 삼아 군사행동을 벌인 것이다. 날줄도 모르고 싸울 줄은 더더욱 모르는 이 거대한 새들은 초반부터 이 진지한 군사행동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날아든 수천 수만 대의 기관총 세례에 결국 일주일 만에 항복을 선언하고 말았다.

독특한 아이디어로 역사를 소개하는 저자의 입담 덕분에 인류의 다채로운 역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하고 몰랐던 여러 가지 재미 있는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다. 시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어디에나 일어나는 사랑, 정치, 대인관계, 돈 관리의 불행한 사건들은 깊은 공감을 일으키고 묘한 위안을 준다. 더불어 역사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 즉 과거로부터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이다.

Amazon Best Sellers Rank: #44,337 in Books (See Top 100 in Books)

#63 in Books > Humor & Entertainment > Puzzles & Games > Trivia

#492 in Books > Humor & Entertainment > Humor > Satire

#1246 in Books > History > World

<목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2월까지 월별로 구성)

인물 사전

<저자 소개>

마이클 파쿼(Michael Farquhar)는 <워싱턴포스트>에서 기자로, 편집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후 집필 활동을 시작하여 『Behind the Palace Doors and Secret Lives of the Tsars』를 비롯해 국내에 번역되어 소개된 『스캔들 스캔들 - 미국편』을 포함한 펭귄의 ‘Teasury’ 시리즈를 썼다.